



[해설]
스마트폰 접는
LG전자
'분리매각' 무계
03

21일 Market Index			
▲ 코스피	3160.84	▲ 코스닥	981.40
	(+46.29)		(+3.74)
▼ 금리 (연고채)	0.974	▼ 환율 (원/달러)	1098.20
	(-0.002)		(-2.10)

‘뉴 삼성’ 계속간다... JY “준법위 지속 지원”

대형마트 온라인몰 오픈마켓 전환 러시

이재용 부회장, 옥중 첫 메시지
위원들에 “본연역할 지속” 당부

준법위, 한계부분 개선안 논의
26일 7개 관계사 CEO 간담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옥중에서도 ‘뉴 삼성’을 향한 의지를 분명히 했다.

21일 삼성전자에 따르면 이 부회장은 변호인을 통해 “이재용 부회장은 준법감시위원회의 활동을 계속 지원하겠다”는 첫 공식 메시지를 남겼다. 이는 준법감시위원회 활동을 계속 지원하겠다는 대외적 다짐이 담겨 있다. 그는 지형 준법위원장과 위원들에게 앞으로도 계속본연의 역할을 다 할 것을 간곡히 부탁했다고 한다.

이 부회장은 지난해 준법감시위를 신설하고 대국민 사과를 통해 무노조 경영 철폐와 경영 승계 중단 등 경영 철학 개편을 선언했다. 경영 쇄신 의지와 함께 ‘국정 농단’ 사건에 연루된 데 따른 사죄 의미도 있었다.

하지만 법원이 준법감시위 실효성을 부정적으로 판단하고 실행을 선고하면서는 조직을 유지하지 않을 것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법에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선고를 위해 출석하고 있다. /손진영 기자

라는 전망도 나왔다. 그러나 이 부회장은 직접 옥중 메시지를 통해 준법감시위에 힘을 실어주며 의혹을 불식했다.

실제 이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최대 변수는 ‘삼성 준법감시제도’의 양형 반영 여부였다. 그러나 결국 이는 이 부회장의 희망을 꺾는 데 도움을 주지 못했다.

지난 18일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 판사 정준영)는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재판부는 파기환송심 첫 공판에서 이 부회장에게 미국 연방양형기준 제8장을 언급하며 실효적 준법감시 제도 마련 등을 주문했다. 삼성그룹은 곧바로 준법·윤리 경영을 위한 독립 기구인 준법감시위원회를 구성했고, 재판부는 이에 대한 실효성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 ‘전문심리위원’을 도입했다.

이 부회장은 지난달 30일 결심공판에서 최후진술을 통해 “준법문화라는 토양 위에서 체크, 또 체크하고, 법률적 검토를 거듭해 의사결정을 해야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고 궁극적으로 사업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됐다”라며 “확실하게 실천하겠다”고 강조했다. 때문에 이번 옥중 메시지는 비단 준법감시위만이 아닌 ‘뉴삼성’ 노력을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고 풀이된다.

준법감시위도 이날 이 부회장 구속 후 첫 정기회의를 열고 7개 관계사를 대상으로한 준법 감시개선안을 논의하며 활동을 이어갔다. 지난 공판에서 준법위 한계로 지적받은 부분에 대한 개선안이다.

오는 26일에는 최고경영진 간담회에서 7개 관계사 대표이사가 참석한 가운데 준법위와의 상견례와 준법문화 정착을 위한 역할 등을 주제로 의견을 나누기로 했다.

아울러 준법감시위는 이날 이 부회장 실행에 대한 입장문도 냈다. 결과에 논평을 낼 위치가 아니라고 선을 그으면서도, 준법경영을 위해 심혈을 기울여왔으며 재판부 의견에 회의적인 모습을 보였다.

다만 해명하기보다는 스스로를 돌아보는 계기로 삼고 결과로 실효성을 증명해내겠다고 다짐했다. 판결과는 상관없이 제 할 일을 계속하겠다고 약속하며, 이미 이 부회장이 준법제도의 핵심인 4세 승계를 포기했고, 앞으로는 지배구조의 합리적 개선을 추진하고 ‘노동’과 ‘소통’ 의제도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삼성전자는 최근 SNS 등에서 퍼진 이 부회장의 ‘옥중 편지’에 대해서는 사실 무근이라고 밝혔다. 이 가짜 옥중편지는 이 부회장 이름으로 국정농단 사건에 대해 억울함을 밝히며 본사를 ‘제3국’으로 옮기겠다는 허무맹랑한 내용을 담고 있다.

/김재용 기자 juk@metroseoul.co.kr

대형마트 온라인몰들이 오픈마켓으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비대면 소비가 일상화되자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채널을 옮겨 수익을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오픈마켓은 판매자와 구매자 간 직거래 플랫폼이다. 쿠팡과 11번가, G마켓 등이 대표적이다. 유통업체가 직매입으로 운영하는 것보다 더 다양하고 많은 상품을 갖출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21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최근 통신판매중개업을 신청했다. 지난 14일 ‘통신판매중개업’ 조항을 신설하고 마이홈플러스 이용 약관, 온라인 이용 약관, 개인정보처리 방침 등을 개정한다고 공지했다.

오픈마켓으로 전환할 경우 상품 가짓수가 늘어나고 소비자에게 폭넓은 선택권을 줘 거래액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업계에서는 단순히 외형을 키울 수 있는 방안으로 오픈마켓이 거론되고 있다.

앞서 지난해 4월 롯데는 자사 온라인몰 ‘롯데닷컴’을 통신판매중개업으로 변경, ‘롯데온’으로 새롭게 탄생시켰다. 롯데 유통 계열사를 ‘롯데온’으로 모아 회원제를 통합하고, 오픈마켓으로 운영해 다양한 상품을 취급하게 됐다. 그리고 론칭 6개월 만에 결제 금액 2배, 방문 고객 수 68.7% 증가라는 실적을 거두며 자리를 잡고 있다.

작년 롯데닷컴 ‘롯데온’ 통해 진출
홈플러스도 통신판매중개업 신청
SSG닷컴, 시기 늦었지만 연내 도입
상품 다양화로 거래금액 증가 기대

하지만 직매입 운영이 아니다보니 입점 판매자 리스크가 따른다. 쿠팡의 ‘착퐁 시계’ 판매 논란이나, 네이버의 오픈마켓 검색 알고리즘 조작 등이 대표적인 예다.

이에 홈플러스는 일반 오픈마켓과 달리 판매자 입점 문턱을 높였다. 일정한 규모를 갖추고 품질 심사를 통과한 경우에만 판매 자격을 부여하는 것. 이는 자칫 불거질 수 있는 품질·신뢰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려는 목적이다.

SSG닷컴이 오픈마켓을 쉽게 도입하지 못하는 이유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SSG닷컴은 구체적인 시기는 미정이나 연내 오픈마켓을 열 계획이다.

일찍이 지난해 2월 이용약관에 통신판매중개업을 추가, 하반기 ‘쓱 파트너스’ 공간을 열어두고 판매자를 모집했으나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일정을 연기했다.

최근에는 오픈마켓 출신 인재들을 영입해 업계의 관심을 모았다.

최영준 티몬 부사장 겸 최고재무책임자(CFO)를 최고전략책임자(CSO)로 영입했으며, 김일선 쿠팡 푸드 관련 상품기획자(MD)와 이미연 이베이코리아 HR(인사) 업무 담당자를 각각 라이프스타일 담당(상무)과 인사 담당(상무)으로 채용했다. 이는 외부에서 검증된 인재를 영입해 오픈마켓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함으로 보인다. 온라인몰의 외형 확대와 품질 관리를 모두 잡기 위해 어떠한 전략을 앞세울지 주목된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바이든 임기 첫 날 ‘파리협약·WHO 복귀’ 서명

취임즉시 트럼프 정책 지우기
환경·국제적 책임 강한 의지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환영”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임기 첫날 파리기후변화협약, 세계보건기구(WHO) 복귀를 지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며 빠르게 ‘트럼프 지우기’에 나섰다. 그는 동맹과 다자주의를 대외정책의 양대 산맥으로 취임 즉시 파리 협약과 WHO에 재가입하겠다고 공약했다.

파리기후변화협약은 2020년 만료 예정인 교토의정서를 대신해 2021년 1월부터 적용될 국제사회의 기후변화대응을 담은 협약이다. 2015년 12월 프랑스 파리에서 채택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이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며 2019년 11월 4일 파리기후변화협약 탈퇴를 유엔에 공식 통보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기후변화를 부정하면서 경제 성장에 방해가 되는 환경 규제를 철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씨엔엔(CNN)은 바이든 행정부의 파리기후변화협약 재가입이 지난 4년간의 기후 정책을 ‘뒤집는’ 중요한 조치이며 이제 미국은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 국내 환경 규제를 강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취임식을 마치고 미 의회 의사당 대통령 집무실에서 취임 선언문, 내각 지명서, 하위 내각 지명서 등 3가지 문서에 서명하고 있다. /뉴시스

미국의 파리기후협약 복귀 소식을 들은 에마누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우리는 우리 시대의 도전에 직면하고, 우리의 미래를 만들고, 지구를 보호하기 위해 더 강해질 것”이라며 “파리협약에 돌아온 것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세계보건기구에 도복귀했다. 세계보건기구는 2020년 기준 194개의 회원국이 가입했으며 세계 인류가 가능한 한 최고의 건강 수준에 도달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주요 국제기구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

나19) 부실 대응과 중국 편향성을 문제 삼아 작년 7월 세계보건기구에 탈퇴를 통보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코로나19 확산 저지를 위한 마스크 착용에 관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명령에는 연방 부지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거리두기를 유지하라는 내용이 포함됐다. 향후 100일 동안 연방 자산 시설과 열차, 항공기 등에서 ‘마스크 의무화’ 행정명령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행정부가 트럼프 시대 4년을 마감하고 환경과 국제적 책임에

대한 의지를 강하게 드러내면서 국내 기업들도 ESG 경영이 필수가 될 전망이다. ESG는 기업이 친환경, 사회적 책임 경영, 지배구조 개선 등을 고려해야 발전할 수 있는 의미를 담고 있다.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탄소제거를 경영목표로 하는 글로벌 기업 수는 약 3배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조업·IT 기반 국내기업들도 조 바이든 취임에 맞춰 새해부터 친환경 에너지·사회적 책임을 논의하며 ESG 경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박태홍 기자 pth7285@